

# ‘광주형 AI기업’ 제품 개발·상용화 속도낸다

## 광주시, 마음AI·알파칩스·TTA와 업무협약 실증프로젝트 확대·산학연 협력 강화 등 추진

광주시가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유망 실물 인공지능(AI) 선도 기업,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정보통신기술(ICT) 표준 개발 기관과 손을 잡았다.

광주시는 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마음AI, ㈜알파칩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별 핵심 기술과 기능을 광주에 직접 연계, 지역 기업이 기술 시험과 적용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데이터와 평가 지원을 지역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실증 프로

젝트 확대 △산·학·연 연계 강화 △전문인재 양성 등 후속 협력을 이어가 지역 산업 생태계를 지속 확장할 방침이다.

협약 기업인 ㈜마음AI는 언어·음성·시각·행동을 통합한 실물 인공지능(퍼지컬 AI)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 자율주행차, 단말형 AI(온디바이스 AI)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코스닥 상장사다.

자체 모델(MAAIL·SUDA·WoRV)을 활용해 공공과 산업 분야에서 실증과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약식에서는 자체 AI 모형을 적용한 4축 보행 정찰로봇 ‘소라’도 공개됐다. 유태준 마음AI 대표는 한

국퍼지컬AI협회 초대 협회장으로, 지난해 국제학회 ‘NeurIPS’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회사는 광주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해 모빌리티, 가전, 헬스케어 분야에서 기술 실증과 데이터 기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알파칩스는 시스템반도체 설계 서비스와 적외선 수신기(IR Receiver) 등 반도체 제품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20년 이상 쌓아온 반도체 설계와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칩 설계·양산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시는 알파칩스를

26번째 펌리스 기업으로 협약에 참여시키고, AI 반도체 실증과 응용 기술 개발, 반도체 성능 검증과 시제품 제작(MPW) 공동 참여, 국책 연구개발(R&D) 기획 등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국가 지정 정보통신기술(ICT) 표준 개발 기관이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에서 성능·안정성·호환성 평가 역량을 갖춰 다양한 산업 및 연구 현장을 대상으로 기술 검증과 표준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AI 검증센터(가칭)’를 설립해 국가 AI 테이터센터의 연산 자원과 지역 실

증 기반을 활용, AI 반도체 성능과 호환성 검증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신뢰성(CAT), 데이터 품질(DQ), 소프트웨어 품질(GS) 인증을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가 인공지능 산업의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증·검증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슬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주신우 등 전국 91개 신탁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선정

신탁사회공헌재단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신탁재단을 포함한 전국 91개 신탁이 인정기업 및 기관으로 선정, 단일 기업 기준 5년 연속 최다 인증을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기관이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활동을 공식 인증하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ESG 요소(환경경영·사회책임·투명경영)를 기반으로 한 19개 평가 지표를 종합해 인정기관을 선정한다.

신탁재단은 포용금융,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비영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올해도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이라는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올해 인정기업으로 선정된 전국 90개 신탁은 각 지역 특성에 맞춘 복지사업, 문화·후생 프로그램, 금융교육 등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다.

이와 함께 우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한 조합에 대한 별도 포상도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상에는 △세종우리신탁 △예산신우신탁 △정선신탁 △한라신탁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에는 △광주신우신탁 △서대구신탁 △전주상진신탁이 각각 수상했다.

이슬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북고 감성 물씬 미니카메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7일까지 6층 패션의류 브랜드 코닥매장에서 패딩 구매 시 초소형 카메라를 3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초소형 카메라 ‘차메라’는 현재 SNS 등에서 품절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으로 킥링처럼 활용할 수 있다. 북고 감성으로 사진촬영과 동영상 녹화도 지원 가능하다.

## 시내버스서 만나는 ‘K금융 어부바’

### 신탁 광주전남본부, 공동홍보 협약 체결

광주지역 43개 신탁이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시내버스 공동홍보에 나선다.

신탁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일 ‘2025년 광주지역신탁 시내버스 공동홍보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문주 신탁 광주지역협

회회장(삼애신탁 이사장), 백도선 광주북부평의회장(북광주신탁 이사장), 박기종 광주동부평의회장(밀알신탁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공동 홍보의 슬로건은 ‘K의 시대, K금융을 어부바 합니다’로, 지역 대표 금융기관을 넘어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신탁의 비전을 담았다. 특

히 홍보 포스터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돼, 신탁이 전하는 따뜻한 금융 메시지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김영하 신탁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서민의 주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신탁만의 K금융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광주지역 신탁은 지역과 조합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슬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주 퍼지컬 AI 인재양성 거점으로 뜬다

### ㈜마음AI·스마트인재개발원 등 얼라이언스 출범

광주지역이 퍼지컬(Physical)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뜨고 있다.

1일 스마트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이날 국내 퍼지컬 AI 선도기업 ㈜마음AI(대표 유태준)는 스마트인재개발원, 한국퍼지컬AI협회, ㈜시캠퍼스, ㈜AIMX와 함께 ‘광주 Physical AI 기반 데이터팩토리 인재양성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광주가 국가 자율기능(AI·로보틱스)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광주는 AI산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제조·반도체 인프라 등 디지털 전환 핵심 요소가 결합된 국내 대표 산업 도시로 퍼지컬 AI 실습·실증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번 얼라이언스를 통해 광주는 인천에 이어 국가 두 번째 퍼지컬 AI 교육 거점으로 공식 확정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재 수급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게 됐다.

퍼지컬 AI는 기존 소프트웨어 중심의 텍스트·이미지 기반 AI와 달리, 로봇·자율주행·스마트 제조 등 물리적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AI를 의미한다.

정부는 퍼지컬 AI를 AI 3대 강국도

약을 위한 국가 전략기술로 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인재개발원은 다년간의 장기 실무형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퍼지컬 AI 중심의 실습·프로젝트 교육을 운영하며 시캠퍼스는 산업 요구에 맞춘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AIMX는 디지털트윈·시뮬레이션 기반 산업 실습 콘텐츠와 로봇 실습 환경을 제공하고 마음AI와 한국퍼지컬AI협회는 온디바이스 자율기능 기술 및 표준 모델 구축을 지원해 전체 기술 체계를 완성한다.

출범식에서는 광주 산업 구조를 반영한 ‘광주형 Physical AI 데이터팩토리 교육모델’이 함께 소개됐다.

해당 모델은 제조·물류·로봇 시스템이 통합된 환경에서 실제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기능 역량을 체득하도록 설계됐다. 디지털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제조 로봇 교육, 자율주행 미션 등 현장 중심 실습 요소를 포함한다.

얼라이언스는 데이터팩토리 시뮬레이션 교육공간 구축을 추진하며 이를 기반으로 제조·로봇·AI·디지털트윈이 융합된 실습 환경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K-엔지니어 기반 AI 실습 환경 적용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 산업형 자율기능 교육의 고도화가 기대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

##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해서 과연 앞으로도 안전할까요? 더 이상 운에 맡기지 말고 이젠 시스템으로 지키세요!

"바이셀프는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전 산업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입니다."

7대 핵심요소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산업·규모 특성별  
최적화된 맞춤형 이행

=

근로자는 위험 불안 해소,  
대표자는 중처법 대응 완료!

2025 한정 프로모션 최대 **60만원 혜택!** 연간이용권 가입 시 최대 **100만원 혜택!**



프로모션 및 도입 문의 062-971-1775 | 중대재해처벌법, 아직 대비하지 못하셨다면?

네이버에 바이셀프를 검색하세요.

